

오늘의 작품

■ 봉 파오파리트 작 '네온ライス필드'

동양 '쌀' 서양 '네온' 결합

봉 파오파리트는 라오스 민주공화국 출생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고국 라오스의 정서를 작품의 주제로 삼는다. 출품작 '네온ライス필드(Neon Ricefield)'는 지난 1993년 터너상 최종 심사에 오른 대표작으로, 쌀을 쌓아올려 밭이랑을 만들고 그 위에 네온을 설치한 것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평범한 일상 소재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하고, 전통을 새로운 기술 또는 최신 미디어와 결합해 현재 삶을 통찰하고 있다. 동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쌀'과 서양의 상징인 '네온' 조명을 작품에 등장시킴으로써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유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의 비엔날레 (2일)

- ▲고베서예전=오전10시~오후6시, 민속박물관 1관. 일본 작가 이시게 케이도의 서예 작품과 꽃꽂이 작품 전시.
- ▲전자 바이올린 피터섹스폰=오후 2:3~4시, 빛가래원형무대. 감각적인 연주를 들려주는 음악 공연.
- ▲열린아트마켓=오전10시~오후6시, 민속박물관 2관. 젊은 미술인들의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그림 읽어주는 여자' 한 점 마 비엔날레서 '그림 포장마차' 퍼포먼스

“그림 요리 뷔페 드릴까요”

“‘잼마 스타일’, ‘감성적인 그림’으로 해주세요.” 1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 ‘그림 포장마차’를 차린 ‘그림 읽어주는 여자’ 한점마(37)씨가 관람객들의 그림 요리 주문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한씨가 펼친 ‘그림 요리 퍼포먼스’는 이날 개막한 광주비엔날레 시민프로그램 ‘열린아트마켓’의 특별이벤트. 한씨는 ‘그림 포장마차’에 ‘잼마 스타일’, ‘꽃이 있는 그림’ 등 10가지 메뉴판을 걸어놓고 즉석에서 관람객들에게 그림을 제작해 선물했다.

“이렇게 광주 관람객들이 미술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이런 교감 때문에 작업이 힘들지 않습니다.”



한점마씨(왼쪽)가 1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 개설한 '그림 포장마차'에서 한 관람객의 주문에 따라 그림 요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작가, 미술전문 MC 등 다방면에 걸쳐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팔방미인이지만 이 같은 활동의 목표는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다.

“주문에 따라 그림을 그리기 전에 사람들의 눈빛을 봐요. 그 느낌으로 작품을 제작한 뒤 선물했을 때 좋아하는 관객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무아지경의 기쁨을 느낍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그림 포장마차’도 관람객들이 미술을 친근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대화의 방법이라고 한다.

“그림 포장마차의 재료가 생활 용품이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미술을 쉽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작업을 통해 관람객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미술을 편안하게 봤으면 해요.”

즉석 그림 제작 선물에 관람객들 '즐거운 비명' '관객과의 소통'... "광주비엔날레 미술대중화 일조"

이 행사에 참석해 뒤 비엔날레를 관람하기 위해 그동안 광주방문을 미뤘었다는 그는 비엔날레가 미술의 대중화에 일조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광주비엔날레는 미술의 대중화를 선도했습니다. 광주에서 비엔날레가 열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비엔날레에 대해 알게되고, 현대 미술을 접하게 됐죠.”

한씨는 “가지고 있는 재능은 미술 밖에 없다”며 앞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창작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선화예술고등학교와 서울대 미대를 졸업했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라는 책을 펴내 유명세를 탔으며, ‘EBS우리미술 바로보기’, ‘청소년 미술 감상’ 진행 등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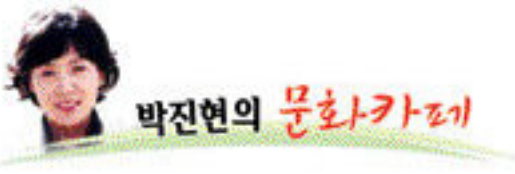
유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가을밤의 오페라 갈라콘서트 3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가을밤의 오페라 갈라콘서트가 3일 오후7시 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문예회(회장 강양근)가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연주회에서는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 하이라이트 부분을 공연한다.

주 레퍼토리는 '축배의 노래' '파리를 떠나서' '이제는 날지 못하리' '포근한 산들바람' 등이며 김홍서·박경숙·최재훈·이명진·임영빈·신은경씨 등이 출연한다. 피아노 반주는 조진미·유정아씨, 해설은 이어진씨가 맡는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의 '생얼'

해남에서 태어난 서양화가 박수룡(53)씨는 서울화단에서는 알아주는 인기작가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엔 (작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할 정도로 상종가를 치기도 했다. 요즘은 건강이 좋지 않아 다작을 하지 않지만, 한창때 그가 보여준 '성공신화'는 대륙(조선시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

지방출신인 박씨가 텃새가 심한 중앙무대에 이를 석자를 알리게 된 원동력은 재능이다. 토속적인 색채와 마모기법을 이용한 독특한 화면은 일약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었다. 그가 중앙화단에 입지를 굳히기 까지는 '선화량'이라는, 결혼한 상업화랑의 마케팅이 있었다. 아무도 눈여겨 봐주지 않았던 그의 작품을 우연히 본 화랑(齋) 김창실씨가 단박에 그의 스타성을 발견하고, 후원자를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선화량의 전속작가가 된 그는 체계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비밀 언덕 하나 없었던' 서울에서 '꿈의 스튜디오'를 갖게 됐다.

박씨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상업화랑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다. 유능한 매니저가 있나 없나에 따라 연예인의 몸값이 달라지듯, 화가에게 있어 상업화랑은 '스타작가'의 꿈을 꾀는 날 깨와도 같다. 요즘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스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광주작가들은 '북이 없는(?)' 편이다. 작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선화량과 같은 전문상업화랑(대관과 전시기획을 병행한 화랑)이 광주에는 나인갤러리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적자운영에 허덕여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은 그렇다 쳐도 대구(7개), 부산(3개), 대전(3개) 등 다른 도시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최근 폐막한 '2006 화랑미시제(9월20~24일)'에서도 광주는 전국 70여개 참여화랑 가운데 가장 나인갤러리가 1곳만 참여해, 문화수도의 체면을 구겼다.

상업화랑의 부재는 곧 작가와 미술시장을 연결해주는 통로의 단절을 의미한다. 다른 도시들은 일찌감치 상업화랑의 '공격적'능에 주목해 화랑미시제, 국제 아트페어 등을 매개로 '지역작가'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광주는 참전세 지역경제, 인맥중심의 작품거래, 행정당국의 무관심 등이 맞물려 작가양성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다.

"인재를 키운다는 차원에서 상업화랑을 양성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심장박동기도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쓸모가 있는 것처럼, 그나마 숨이 끊어지면 무용지물이다"는 양승환 나인갤러리 관장의 쓴소리는 그 어느때보다 뼈아프게 들린다. 마치 '비엔날레도시'라며 한껏 치장한 문화수도 광주의 '생얼(화장하지 않은 맨얼굴)'을 들킨 것 같아서 말이다.

문화수도 광주의 '생얼'

문화수도광주부지 jhpark@kwangju.co.kr

35년 전통의 복교당 한약방이 연구 개발한

장생·두충 모가래 식품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동의보감·본초학에서 효능증명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한 수험생, 직장인, 주부, 운동선수 부모님과 친지에게 좋은 선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55번지
TEL.(062)385-3303, 362-6900, 362-4334

공무원

- ★ 행정·세무·교정직
- ★ 검찰·사회복지·교육행정
- 정동 공무원 강좌 —
- 정규이론반·문제풀이반
- 40년 전국최고의 전통
- 노랑산·광주올스타팀 출강
- 청강후 등록(강의만점)

농업직

- 식작·재배약-이상우교수(전농재위임)
- 국어·김정진·국사·이한영·영어·전해성
- 전국 최고의 강사 —

소방직

- 광주·전남, 서울시 소방직 대비
- 전국에서 소방직 전문강좌임

경찰직

- 일반경찰, 해양경찰, 101년경찰
- 정규이론반+문제풀이반
- [동시강좌]
- 전해성 선생 경찰영어특강

전남고시학원

www.Chonnamgosi.co.kr
TEL: (062)222-5105

첨단월계공인중개사

☎ (가) 972-4585 ☎ 011-604-8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412호)

동림2지구 신축, 각층 100평 병·의원, 학원, 상가 1층 대형마트 확정

첨단중심 상업지역

첨단 원룸 건물급매

첨단 인근 자연·생생녹지

싼 공장, 창고부지 "금매매"

금보주택신선실행

☎ (가) 281-8949 ☎ 011-602-2233
(북구 우산A 문충초등학교 정문앞)

신원대지

건물매매

전원주택매매

주유소매매

믿음공인중개사

☎ (가) 971-4811 ☎ 011-627-0876
(첨단지구 우리은행사거리 세복문고 옆)

첨단지역 상업용, 일제층 상가지역 (첨단사거리 세복문고 옆) 상가전물 매도

첨단지역 상업지역 토지 1600평, 508평, 250평, 100평, 570평, 1089평, 200평 다양보유

(주) 홈컨 부동산 리서치 중개

상무지구 사형갈 한국은행후문옆
Tel 062)233-2222 www.homecon.co.kr

- 빠른 거래가 가능합니다.
- 광주 및 인근 2,500여개 경제공간을 매일 분석합니다.
- '매수자의 눈'보다 더 정확하게 감測합니다.

※주요 물건 목록(여타 물건 다량 보유)

- (비밀물건) 남순수의 4억원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5억원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4억원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3억 원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2억 원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1억 원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5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3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2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1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5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3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2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1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5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3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2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1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5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3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2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1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5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3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2000만원 내외
- (비밀물건) 남순수의 1000만원 내외

에이플러스 부동산신선실행

☎ 062)973-9174 ☎ 016-757-8800

첨단지역 상용용지 100평, 240평, 510평, 1100평, 3000평 가

수원택지개발지구 1차지번지, 협의대지, 협의대지, 협의대지, 협의대지

신항택지개발지구 1번 국도변 준주거지 400평, 400평, 400평, 400평

우량인야

당양 용면 전 1600평

단양 용면 전 1600평

풀프 연상: 120억

광주지역 녹지 사업부지

전원주택 (주박부지)

공장

청단지역 A급 상가

중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주)

☎ 062)233-9311~3

화순군 남면 대곡리 청용골

면적 30,000평

시설물: 파이프빌 하우스 600평(300평 x 2)

주택 20평

전기시설 설치(16kW)

전화설치됨

철반사적 녹처지식(3년)

현황: 평탄한 지형임 (최속) 약 300m 이상

계곡에 접함 (우측) 약 300m 이상

4m포장도로에 접함

목선코리아 부동산신선실행·정기유법부사 법원경매

☎ 222-8446 (법원경매매입할당 일)

아파트

농지

주박+대지

대지구(원룸)

근린주택

임야

공장

속박시설